

박현주 회장, 일본 증권사 품고 글로벌 M&A 보폭 넓힌다

(미래에셋그룹)

일본 산코증권 지분 전량 인수
자기매매 강화 후 리테일 진출
오카산증권그룹과 협력 논의

“과거에는 베트남 같은 곳도 갔지만 앞으로 M&A는 더 큰 곳으로 가려 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예고한 해외 인수·합병(M&A)이 일본 산코증권 인수로 구체화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9일 미국 자회사를 통한 산코증권 지분 전량 취득과 출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발표했다. 박 회장이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일본 증권사 인수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산코증권의 기존 자기매매 사업을 보장하고 현지 운영 기반을 강화한 뒤 리테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조직 체계를 정비하며 일본 개인투자자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자기매매 보장 후 리테일…오카산과 협력 논의

산코증권은 오카산증권그룹 산하의 자기매매 전문 증권사다. 자기매매는 고객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증권의 일본 시장 진출을 표현한 이미지.
/미래에셋증권·오카산증권그룹, 시로 생성한 이미지

주문을 중개하는 위탁매매와 달리 회사 고유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을 거래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코증권은 1953년 설립돼 1980년 오카산증권그룹에 편입됐다. 2002년 도쿄증권거래소 종합거래참가자 자격을 취득했고, 2007년에는 도쿄에 자기매매 전용 트레이딩센터를 열었다. 올해 5월 개인고객 사업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전한 뒤 자기매매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출자금 가운데 주식 취득대금을 제외한 자금을 산코증권에 투입

해 사업을 확대한다. 리테일 사업은 관련 절차와 조직 체계를 갖춘 뒤 추진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시점이나 활용 플랫폼은 제시하지 않았다. 거래 종결 일정도 계약상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지 시장과 제도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산코증권의 기존 사업을 보장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체제 준비를 거쳐 장래적으로 리테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2024년 소액투자 비과세제

도(NISA)의 혜택이 확대되면서 가계자금을 예금에서 주식·펀드로 유도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증시 활황과 기업의 자금조달·M&A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외국계 금융사들도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카산과 상품·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신에서는 그룹 산하 글로벌X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오카산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일본으로…‘큰 시장’·기술 역량에 시선

일본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 진출하는 시장은 아니다.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은 1984년 8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도쿄사무소를 열고, 1996년 지점으로 승격해 한국 주식 중개와 한일 간 자본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일본 경기침체 속에 2002년 3월 지점을 폐쇄했지만, 2006년 사무소를 다시 열고 2011년 지점으로 승격했다. 당시에는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와 한일 기업 간 M&A·기업공개(IPO) 등을 중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2015년 지점을 사

무소로 축소하기로 했고, 2016년에는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번 일본 증권사 인수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미래에셋 3.0’ 전략의 일환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사업 성장과 M&A를 병행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넓히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 세계 11개 지역에 현지법인 25개와 사무소 3개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인력은 약 5300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 27일 강연에서 “제일 하고 싶은 곳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중국 본토에서 추진 중인 금융사 인수도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 대상의 기술 역량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일반적인 운용자산(AUM)이 있는 회사는 관심이 없다”면서 “그런 회사는 외형은 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산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미래에셋이 은행을 안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단순한 외형 확대보다 AI·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역량에 주목하겠다는 뜻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사상 최대 주주환원에도 주가 역주행…삼성전자 4% 급락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에 치중” 지적
남은 재원 환원 시점·방식 불확실

‘화끈한 주주환원을 기대했는데 예상했던 30조원에 그쳐 깊이 빠졌다’, 회사가 직원들 성과급만 챙기고 자사주 매입·소각도 우선주 주주들만 챙긴다.’

29일 삼성전자 주가는 24만2500원에 출발한 뒤 뚜렷한 반등 없이 전 거래일보다 4.13% 하락한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30조원(1주당 4601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공시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 주주 환원 계획과 달리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의 실망과 불만이 주가로 바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환원 방안 공시 직후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섣토가 빚발쳤다. 삼성전

자 보통주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올리는 자사주 소각을 외면한 채 일회적인 보상 성격인 배당으로 때우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자사 주식을 사서 등록을 말소하는 걸 뜻한다.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우선주 매입 비중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배당을 제외한 55조~75조원의 활용 방안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남은 재원을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배분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347억원어치

를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배당 30조원만 확정됐고 남은 55조~75조원의 환원 시점과 방식이 미정인 점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해석됐다. 배당은 즉시 과세 대상인 점도 외국인들에겐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16억원, 525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주주환원책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소액주주들의 글이 잇따랐다. 직장인 이모(42)씨는 “장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사주 소각을 원했는데 일회성 요인이 큰 배당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1% 미만을 가진 소액 주주는 지난 6월 말 현재 797만명이 넘었다. 6개월 전의 419만명보다 두 배 가

까이 급증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방안으로 배당에 무게를 실는 배경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있다. 금산법 24조는 같은 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산업자본이 금융계열사를 그룹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 1.49%로 합산 10%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 두 회사 지분율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한도를 지키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현금 배당은 주식 수를 건드리지 않아 이런 부담이 없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82% 오른 151만4000원에 마감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이사회가 3분기(7~9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며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했다. 더불어 올해 8월 발표한 40조원을 포함해 총 60조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투입한다. 회사는 지난주 40조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주환원책을 ‘진짜’ 주주환원이라고 평가하며 “최대주주에 유리한 배당을 고집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 정책의 지속성을 약속했고, 영업의 일회성 이익 역시 주주와 공유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증권(300만원), 한화투자증권(315만원), 메리츠증권(320만원) 등 대다수 증권사는 기존에 제시했던 300만원대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허정윤 기자

TIGER 美S&P500, 개인 순매수 5조 돌파

미래에셋, 국내 상장 ETF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TIGER 미국S&P500 ETF(360750)’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금액이 지난 28일 5조18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인버스를 포함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종전 단일 ETF의 연간 개인 순매수 최대 기록은 지난해 같은 상품이기록한 3조6387억원이다. 올해는 200거래일 가운데 185일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10거래일 중 9일 이상 매수 금액이 매도 금액을 웃돈 셈이다. 현재 순위를 연말까지 유지하면 2024년부터 3년 연속 개인 순매수 1위에 오른다.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상품에도 개인 자금이 유입됐다. ‘TIGER 미국 나스닥100 ETF’와 ‘TIGER 미국배당 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각각 2조3814억원, 1조2998억원으로 집계됐다.

TIGER 미국S&P500을 포함한 3종의 합산 개인 순매수는 8조8635억원이다.

/허정윤 기자

iM증권 준법·윤리경영 강화

iM증권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026 윤리·준법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원과 부사장, 윤리경영 실천 리더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부통제와 부패 방지를 주제로 한 전문가 교육이 진행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인제 변호사는 증권업계 주요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부패 방지 통제 실무를 설명했다. 딜로이트 안진 최창석 상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책무 구조도의 이해, 실무 운영 방안 등을 다뤘다.

임직원의 준법·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도 열렸다.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김아영 기자 aykim@

메리츠증권, MTS 전용 ELS 14종 출시

기초자산으로 글로벌 지수 구성

메리츠증권은 MTS 전용 주기연계증권(ELS) 14종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상품은 ‘메리츠 Super ELS 제700회’로,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1.61%의 수익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코스피200, 니케이225, S&P500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했다.

상품 가입 이후 4개월마다 상환 기회를 부여해 조기상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증가가 모두 만기 배리어 이상이거나, 기초자산 모두 한 번이라도 낙인(knock-in) 배리어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총 3년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만기상환 배리어 미만이며, 투자기간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낙인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

메리츠증권은 종목형 ELS 6종과 지수형 ELS 7종도 함께 출시했다.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형 상품과 추가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리드형 상품 등 다양한 구조로 상품 라인업을 준비했다.

온라인 ELS는 그간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고객 수요에 맞춰 이번 회차부터 청약가능대상을 법인계좌까지 확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